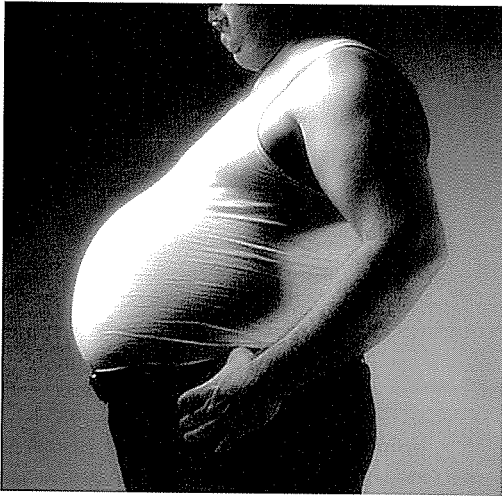




비만자가 치매 위험 훨씬 높아



비만자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살그렌스카 대학의 아니카 로젠그렌 박사는 미국 내과 회보(2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성 7,402명을 28년간 관찰한 결과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로젠그렌 박사는 1970년대 초반 연구 시작 당시 BMI가 20이었던 남성이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고, 수치가 30 이상이면 치매 위험이 2.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을 나타낸다.

로젠버그 박사는 “흡연·혈압·콜레스테롤 수치·당뇨병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도 체중과 치매질환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5. 2. 21)

실명위기 환자 120명 무료 수술

오는 5월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이 개원 기념으로 실명위기



에 처해있는 환자 120명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료 개인수술은 3월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수술대상은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망막질환 ◆눈꺼풀질환 ◆사시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 시력 호전이 기대되거나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상이다.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브란스병원 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추천 받아 수술을 해주는데 진찰료·검사료·수술비 및 수술 후 6개월간의 진찰료와 약값도 전액 지원한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무료 개인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는 전국 각 시·도 보건소 및 행정관청의 보건위생 담당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병원에서 진찰날짜를 알려 준다. 병원에 직접 신청할 경우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으로 상담을 하면 된다.

(서울경제 2005. 2. 21)

유엔법률위 ‘인간복제 금지’ 선언문 채택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는 18일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human cloning)를 금지하고 생명과학 적





용 시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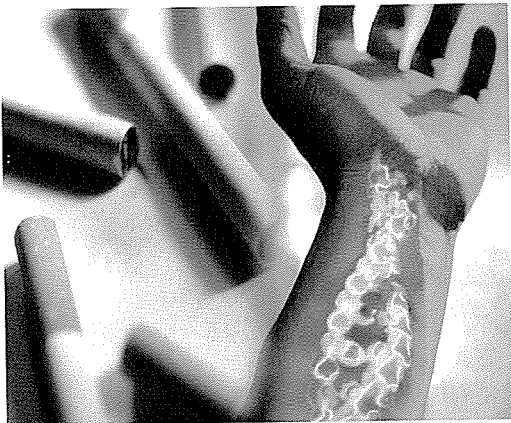
이 선언문은 회원국들에 대해 ▲생명과학 적용 시 인간 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 ▲인간 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기술 적용 금지 ▲생명과학 적용 시 여성의 불법이용(exploitation) 방지를 담고 있다.

일부 외신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에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도 포함시켰으나 줄기세포연구 지지자들은 선언문에 구속받지 않겠지만 모호한 내용이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문 채택에 의해 우리 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5. 2. 19)

흡연, 혈관노화 · 고혈압 원인



흡연이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려 혈관 노화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창규·김진원 교수팀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고혈압·당뇨 등 심혈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 100명(평균 29.2살)을 대상으로 흡연 뒤 동맥경직도 검사 및 혈압을 잰 결과 흡연이 혈관 탄력도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만성 흡연자(하루 한 갑, 흡연 경력 7~13년) 40명, 일시적인 흡연자 40명(비흡연자로 실험을 위해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담배 2개비를 피우게 한 뒤 1시간 동안 혈압과 동맥 탄성도(맥파전파속도)를 재 비흡연자 20명과 비교 분석했다.

만성 흡연자는 담배연기 흡입 5분이 지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3mmHg에서 128로, 이완기 혈압은 68mmHg에서 73으로 올라가, 15분 동안 지속됐다. 일시적 흡연자는 평균 120, 65에서 125, 72로 올라갔다.

박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이 있으면 동맥의 경직이 심해져 혈관 손상이 나타나 심혈관질환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흡연이 이를 촉진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술자리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혈압, 혈관 탄력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블러드 프레스처>에 실릴 예정이다. ☎

(한겨레 2005. 2. 18)